

佛 니스카니발에 등장한 '욱일기'...주최 측 "인지 즉 시 시정"

송고시간 | 2023-02-26 08:01

11일 퍼레이드에 욱일기 연상 조형물 나와...관객이 문제 지적
"카니발 참가자의 역사적 무지에 따른 것...바로 디자인 수정"



프랑스 니스 카니발 등장한 조형물과 수정본

(파리=연합뉴스)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열린 제150회 니스 카니발에 지난 11일(현지시간)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왼쪽)이 등장했다. 오른쪽은 관객의 지적을 받고 카니발 참가자가 수정한 조형물 도안. [독자 및 니스 카니발 주최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3.2.26 photo@yna.co.kr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세계 3대 카니발이자 프랑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니스 카니발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조형물이 등장했다가 관객의 지적으로 주최 측이 이를 시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올해로 150주년을 맞은 니스 카니발은 지난 2월 10일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니스에서 '세계 최고의 보물'을 주제로 개막했는데, 그다음 날인 11일 퍼레이드에 욱일기를 떠오르게 하는 조형물이 나왔다.

일본을 상징하는 이 조형물 상단에는 후지산 모형이 있고, 하단에는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한 욱일기와 유사한 그림이 파도, 벚꽃과 함께 그려져 있었다.

이 조형물은 자유의 여신상(미국), 타지마할(인도), 피라미드(이집트) 조형물 등과 함께 행진했다.

니스 카니발 주최 측은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며 "역사적으로 무지했던 카니발 참가자가 미적인 이유로 했던 선택"이었다며 "관객이 이메일로 (욕일기의 문제점을) 알려온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해당 퍼레이드가 끝날 무렵인 11일 오후 5시 30분께 지적을 받고 나서 그날 저녁 행사에 이 조형물을 내보내지 않기로 즉각 결정했고, 카니발 참가자에게 다음 행사 때까지 디자인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카니발 참가자는 관객의 지적과 주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형물 하단 배경에서 빨간색 대각선 줄무늬를 지웠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 26일 폐막할 때까지 바뀐 조형물로 퍼레이드에 참여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태양에서 햇살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욱일기는 일본군이 적을 제압한 후 입성 행진 때 내걸리거나, 점령의 표시로 쓰였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고통받은 국가들은 욱일기를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1873년 시작한 니스 카니발은 지난 2021년 '니스, 리비에라의 겨울 휴양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세계의 유·무형 유산을 보여주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브라질 리우 카니발,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과 함께 세계 3대 카니발로 불리는 니스 카니발은 1천8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3천만유로(약 417억원)를 벌어들이는 주변 지역 경제를 먹여살리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제150회 프랑스 니스 카니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